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포용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
	보도	배포시부터	배포	2019.2.25.(월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 (02-2100-2530)		담 당 자	서 나 윤 서기관(02-2100-2533)	

제 목 :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간담회 개최결과

-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주요 금융지주회장들은 **글로벌 핀테크 경쟁 상황과 국내 금융산업의 변화의 필요성**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,
 - ① 핀테크 기업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**금융인프라 개방**
 - ② **유니콘** 핀테크 육성을 위한 **투자 및 지원 확대**
 - ③ 핀테크 협력을 통한 **글로벌 진출 확대** 등을 함께 추진기로 **합의**
- 특히, 금융지주회장들은 핀테크 기업과 은행간 금융결제망을 개방하는 **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**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공감을 표명

1 회의 개요

- '19.2.25(월),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추진을 위한 **핀테크 활성화 필요성**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, 금융그룹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금융지주 간담회 개최

<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19.2.25일(월) 8:30~9:30 / 금융위 16층 대회의실
- 참 석 자 :
 - 금융위원장, 금융위 사무처장, 금융혁신기획단장
 -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,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,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,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, 김도진 기업은행장,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,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, 김지완 BNK금융지주회장, 김한 JB금융지주회장
 - 은행연합회장, 금융결제원장
- 주요내용 : ① (은행연합회) 금융권 핀테크 활성화 추진현황 및 건의
 ② (금융위원회)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소개
 ③ (금융위원회)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(※ 별도 보도자료 배포)

2 주요 논의사항

가.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요지

- 최 위원장은 최근 우리경제 주력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
- 위원장은 핀테크가 촉발한 디지털 환경변화는 우리가 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분기점(Great Divergence)이 될 것이라며,
 - ‘추격형’ 아닌 ‘선도형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금융권이 먼저 과감하고 선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기를 제안
-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해야 할 몇 가지 노력을 강조
 - 첫째, 핀테크 기업, 은행 상호간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하여 혁신적 기업에 “기회”를 주고, 소비자 중심 혁신 추진
 - 특히, 「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」으로 공동 결제시스템을 개방하고, 망 이용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은 핀테크, 금융 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대승적 합의에 감사를 표명
 - 또한 국민들이 간편 앱 하나로 모든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므로 소비자 편의의 획기적인 제고도 기대
 - 둘째,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혁신적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그룹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 부탁
 - 셋째,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은 핀테크를 전략으로 활용하여, ‘핀테크 로드’를 개척하는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강조
- 이와 함께, 정부도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놀랄만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힘
 - 인터넷전문은행법,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, P2P법 제정 등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도 구축 노력 지속

- 4월 시행되는 '금융규제 샌드박스'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
 - 또한, 금융그룹들이 글로벌 금융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규제완화, 규율체계 개편을 고민 중이라고 밝힘
-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들과 정부의 시대적 소명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의 DNA를 새롭게 남기는 것이라며,
- 특히, 핀테크는 미래 일자리를 '발명'해 낼 대표 신산업으로, 「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」이 그 출발점이자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
 -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우리 금융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, 경제의 새 활력을 불어일으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언

나. 주요 논의내용

- 은행연합회는 글로벌 금융그룹들의 디지털 주도권 확보 경쟁과 국내 금융권의 대응동향 등을 소개하면서,
- 핀테크와의 협업, 이를 통한 금융회사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
-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그간의 「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」을 설명하고, 정부와 금융권의 공동 노력을 강조

<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>

전략 1	금융규제샌드박스 적극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'금융규제 샌드박스' 운영 •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• 핀테크 지원예산(79억원)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
전략 2	넓은규제·복합규제 과감한 혁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핀테크 현장 금융미팅' 통한 상시적 규제 혁신 • 법령상 규제·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 • 보다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체계 개편 검토
전략 3	핀테크 분야 투자·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 •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등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•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
전략 4	핀테크 신시장 개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• 지급지시서비스업(PISP) 도입 등 전자금융업 전면개편 •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• P2P대출 법제화 추진
전략 5	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핀테크 활용한 금융분야 신남방정책, "핀테크 로드" • 2019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(5.23~25)
전략 6	디지털 금융 보안·보호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강화 • 빅데이터,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강화 •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(Digital Divide) 강화

- 이어서 「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」을 발표(※ 별도 보도자료 배포)

다.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

- 참석한 회장들은 글로벌 금융플랫폼 경쟁 현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명하면서 금융그룹별 디지털 추진전략을 소개
 - 윤종규 KB회장은 금융결제 분야 혁신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 공감하며 선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힘
 - 조용병 신한회장은 핀테크 기업과의 혁신금융서비스 공동참여 계획, ‘혁신성장 프로젝트’ 통한 4년간 1.7조원 투자 계획 등 언급
 - 김정태 하나회장은 그룹공동 Open API 개방, CVC 설립을 통한 투자 확대, 핀테크 제휴 통한 동남아 등 해외진출 노력 소개
 - 손태승 우리회장은 Open API, 클라우드 지원 등 테스트베드센터 조성계획, 3년간 약 3조원 규모 직접투자 계획 등을 밝힘
 - 김태오 DGB회장은 올해를 DGB 디지털 혁신(Digital Transformation)의 원년으로 삼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
 - 김지완 BNK회장은 부산경남지역 핀테크 생태계 조성 지원 중이며, 특히 인재양성, 비즈니스 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힘
 - 김한 JB회장은 전통적 금융산업의 틀을 넘어, 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영업채널 확장 노력 등을 소개
 -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IBK핀테크 드림랩, 창공 등을 소개하면서, 공공기관까지 클라우드 활용 확대가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힘
- 특히, 「금융결제인프라 혁신방안」에 대해서는 정부의 깊은 고민에 공감한다며, 의미 있는 혁신방안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룹의 전략 수정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
 - 이에 더하여, 글로벌 디지털 경쟁 속도를 감안하여 정부의 규제개혁과 금융산업 지원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제안

별첨. 금융위원장 모두발언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